

취업 우수사례

<고민 끝, 취업준비 시작!!>

2020년 가을,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로 인해 잘 다니고 있던 대학원 석박통합 과정을 6학기 때 눈물을 머금고 자퇴하게 되었다. 출산 전에는 아이를 낳고, 딱 100일만 지나고 다시 대학원에 복귀할 계획이었으나, 실전육아를 경험해보니, 밤 늦게 까지 실험하고, 논문을 읽고, 자료 정리할 시간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 불 보듯 뻔했다. 그래서 어렵게 자퇴를 결정했고, 또한 앞으로의 진로와 가정 경제 문제로 고민의 시간은 계속 깊어만 갔다. 집에서 아이를 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변 친구들은 회사도 잘 다니고, 예쁘게 꾸미고 다니고, 실적도 잘 내는 모습에 나만 점점 사회에서 멀어져가며, 이전의 내 경력들이 다 사라지는 것만 같고, 내가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 아이가 좀 크면 다시 취업을 해야 하나, 그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는 걱정들이 나를 힘들게 했다. 다시 한 번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육아를 하며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고, 특허사무소에서 특허 분석 분야의 일을 해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특허 분야 일을 너무 오래 쉬었고, 특허 분석 분야는 처음이라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막막했다. 절실하면 이루어지고 생각하고 준비하면 기회는 반드시 올 거라 생각했던 그 때, 마침 대전광역시새일센터에서 특허빅데이터분석 과정을 개설한다는 홍보 육교 현수막을 보게 되어 설레는 마음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해보았다. 상담사님의 친절한 안내와 함께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면접까지 통과한 후 교육 훈련생이 될 수 있었다. 약 2개월(총 시간) 가량의 교육을 받고 특허분석 업무에 필요한 학습을 할 수 있었다.

<경진대회는 취업의 성공으로 가는 꽃 길~~>

특허 빅데이터 분석과정에서 경진대회를 했었는데, 조별 팀 구성을 하여 발표 준비를 했었다. 조장을 맡았던 나는 IP 창출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IP 창출 과정에서 논리가 맞는 구성을 생각해내기 위해 조원들과 함께 고민을 했었다.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IP 창출을 위해 시장 조사, 특허동향 조사, 핵심특허 도출, 핵심특허 대응전략 등 전반적인 것들을 함께 공부하고 준비하였다. 조원 분들도 아이를 키우며 열심히 준비하였고, 우리는 잘 했지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는 격려와 함께 장려상을 받았다. 그때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서류 준비에서는 지금까지의 경험 즉, 선행 기술조사원 자격증과 조사원으로서의 경력을 강조했고, 이후 학위과정을 하면서 국가연구소에서의 경험이 특허분석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적었다. 면접 준비를 하면서, 빅데이터 과정에서 배운 내용들에 대하여 공부하고, 특허동향 보고서 등을 미리 보고, 비슷하게 엑셀 작업을 해보고, 보고서 작성 시 들어갈 문구들에 대하여 고민해보며 내가 특허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다면, 어떤 내용들을 넣을 것인지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보았다. 또한, 특허사무소에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명세서 보는 법, 날짜 계산 등 지식재산 관련 지식을 공부하여 면접에 응할 수 있었다. 토익점수가 만료되어서 조금 불안했었는데, 다행히 특허사무소에서는 토익점수보다는 실무업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었고,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면접에서는 솔직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대신 열심히 배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다행히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대표 변리사님의 배려로 출퇴근 시간을 조금 조정하여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놓고도 출퇴근 시간에 눈치 보지 않고 일 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꿈꾸던 워킹 맘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취업 후, 나는 더 바빠졌다. 아침에 아이 이유식 먹이고, 이유식 도시락을 챙기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 놓은 뒤 직장에 늦지 않고 도착해서 하루의 일을 시작한다.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맞춰 퇴근해야 하기 때문에 또 바쁘게 일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와서 육아 출근을 한다. 이전에는 엄마로서의 나만 있었다면, 지금은 내 일을 하는 나와 엄마로서의 내가 공존한다. 가정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이 일을 하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있다. 아직 출근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사무실 직원들과 함께 소통하며, 하나 하나 배워가는 과정이 참 재밌다.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혼자 점심을 먹었는데, 사무실 직원들과 함께 하는 점심시간이 무척 즐겁다(웃음).

무엇보다 아이를 낳고 희미해졌던 삶에 한 가지 소망이 생겼다. 이 분야에서 꾸준히 경력을 쌓아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내 아이가 사회의 여러 벽에 부딪혀 좌절하고, 힘들어 할 때 얘기해 줄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엄마도 모든 상황이 엄마를 멀리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새로운 꿈을 꾸었더니, 도움을 주는 손길이 있었고, 나를 믿고, 새로운 도전을 했고, 지금까지 그 길을 가고 있다고. 너도 지금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다.

<모든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새일센터” >

나의 어머니 또한 새일센터에서 컴퓨터 과정을 수강하고, 취업에 성공하셨다. 나이가 이미 50세가 넘은 후였다. 어머니께서는 27살에 나를 낳고, 은행 업무를 그만두시고, 전업주부가 되셨다. 그 후 25년 동안 나와 동생을 키우며 가정을 일구셨다. 자녀들이 대학생이 되고 난 후, 어머니는 운전면허 자격증을 따시고, 새일센터에서 컴퓨터를 배우셨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다. 매일 타자연습을 하시고, 파워포인트, 엑셀, 한글을 노트에 뽁뽁하게 적어가며 공부하시고, 복습하고, 또 복습하셔서 취업에 성공하셨고, 지금까지도 직장생활을 하시고 계신다. 어머니는 내게 살아있는 취업성공사례였다. 나 또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처럼 일단 부딪혔다. 그리고 혼자서 고민하고 있을 때 나에게 손을 내밀

어준 “대전광역새일센터”와 함께 노력했으며, 급여보다도 경력을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급여에 크게 욕심내지 않고, 일단 나를 불러주는 곳에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경력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나의 가치도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나는 일을 하는 내가 자랑스럽고, 그런 내가 좋다.

<경력단절이 아닌 취업 대기 중~.>

많은 여성들이 결혼, 육아, 출산, 질병 그 밖의 많은 일로 경력단절 상태에 있다.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고,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생각해보면, 경력단절이라는 말은 너무 슬픈 말인 것 같다. 단절이라는 말 대신, 경력이 잠깐 멈춰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떨까? 언젠가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나를 믿고, 나를 믿는 만큼 열심히 준비하고, 도전하면 경력은 다시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용기와 자신감을 잃지 말고 취업준비는 꼭 대전광역새일센터와 함께 하여 꽃길을 걷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여성을 응원하며 내일의 출근준비를 해야겠다.